

2009-4

Music  
Industry  
Issue Paper

---

# 해외 주요 음악 컨퍼런스 현황 및 이슈

---

Sep, 2009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예술경영연구소

한국콘텐츠진흥원



## <차례>

<b>1. 개요</b>	<b>3</b>
<b>2. 세계 주요 음악 컨퍼런스 현황</b>	<b>4</b>
<b>2-1. 지역별 주요 음악 컨퍼런스 현황</b>	<b>4</b>
<input type="checkbox"/> 미주지역 주요 음악 컨퍼런스	4
<input type="checkbox"/> 유럽지역 주요 음악 컨퍼런스	5
<input type="checkbox"/> 아시아지역 주요 음악 컨퍼런스	7
<b>2-2. 시점별 주요 음악 컨퍼런스 현황</b>	<b>8</b>
<input type="checkbox"/> 윈터뮤직 컨퍼런스	8
<input type="checkbox"/>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음악컨퍼런스	13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뮤직 포럼	15
<input type="checkbox"/> 샌프란시스코 뮤직 테크 서밋	17
<input type="checkbox"/> 뮤직매터스: 아시아 태평양 음악포럼	19
<input type="checkbox"/> 미템/미템넷 컨퍼런스	21
<input type="checkbox"/> 음악산업 미래 정책 포럼	22
<b>3. 세계 주요 음악 컨퍼런스 흐름 및 특징</b>	<b>25</b>
<input type="checkbox"/> 페스티벌형 컨퍼런스 발전	
<input type="checkbox"/> 변화하는 기술이슈 중심으로 특화	
<input type="checkbox"/> 장르, 비즈니스, 정책 등 특화 컨퍼런스의 지속발전	
<input type="checkbox"/> 2009년 주된 화두는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Music 2.0과 모바일	
<b>4. 결론 및 시사점</b>	<b>27</b>

## 1. 개요

- 음악산업은 디지털 음악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으로 변화의 속도만큼 많은 이슈가 생겨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대적 흐름을 읽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관건이 되었다.
  
- 음악산업 컨퍼런스는 산업계의 현안과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변화에 대응하고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산업계의 이슈를 점검하고 선도하는 정보교류의 장(場)으로서 참가자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통을 통한 지식의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 이에 전 세계 음악산업계 이슈가 집적되는 음악산업 관련 주요 컨퍼런스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산업계의 화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음악산업계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음악산업 컨퍼런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를 거듭하였다.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음악산업 관련 컨퍼런스가 정례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주요 컨퍼런스의 현황에 대한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외의 주요 음악산업 컨퍼런스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컨퍼런스의 이슈 점검을 통해 음악시장의 변화 및 전망에 주목해 본다.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음악관련 축제나 컨퍼런스 중 산업계의 이슈를 다루는 음악산업 관련 컨퍼런스 위주로 다루며 주요 지역별/시점별 컨퍼런스 현황을 살펴보고 2009년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본다.

## 2. 세계 주요 음악 컨퍼런스 현황

### 2-1. 지역별 음악 컨퍼런스

□ 미주지역 주요 음악 컨퍼런스

시점	이름	지역	역사	홈페이지
3월 10월	Digital Music Forum	뉴욕 샌프란시스코	EAST 9년 WEST 4년	www.digitalmusicforum.com
3월	Billboard Music & Money Symposium	뉴욕	9년	www.billboardevents.com/billboardevents/mms/
3월	SXSW	오스틴, 텍사스	22년(1987)	www.sxsw.com
3월	Winter Music Conference	마이애미, 플로리다	25년	www.wintermusicconference.co
5월	San Francisco Music Tech Summit	샌프란시스코	2년	www.sanfranmusictech.co
8월	Cutting Edge Music Business Conference	뉴올리온즈	9년	www.cuttingedgemusicbusiness.com
10월	Future of Music Summit	워싱턴	9년	futureofmusic.org
12월	the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Conference (IFCON)	라스베가스	2년	www.imfcon.com

[표] 미주지역 음악산업 컨퍼런스

- 세계 최대의 음반시장 미국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음악산업 관련 컨퍼런스가 많이 열리는 지역으로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세분화 되었으며 지역별로도 분산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 최근 디지털 음악시장이 부각되면서 이에 특화된 컨퍼런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역사를 자랑하는 종합적인 이슈를 다루는 전통적 컨퍼런스에서부터 핵심주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신생 컨퍼런스까지 다양하다.
- 80년대부터 시작한 SXSW나 윈터뮤직 컨퍼런스와 같은 역사와 전통의 음악컨퍼런스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컨퍼런스로 도약하였으며 디지털 음악산업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밀레니엄(2000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생겨난 컨퍼런스가 지속

적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테크놀로지에 대한 담론을 이어가는 신생 컨퍼런스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Cutting Edge Music Business Conference는 1992년 "지식은 힘이다"라는 구호 아래 설립/시작되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도시 중 하나인 뉴올리온즈에서 열린다. 쇼케이스에서 참여 뮤지션들이 음반 기획사 사장을 비롯해, 매니저, 미디어 등 산업계 종사자들과 만날 기회 마련함으로써 Fastball, Cowboy Mouth, Tablet, Henry Gray 등 아티스트의 음악계 진출에 도움 제공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비슷한 형식의 행사들이 많아지면서 특색이 약화되었다.

□ 유럽지역 주요 음악 컨퍼런스

- 유럽은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는 미뎀(MIDEM)이나 독일의 팝콤(Popkomm)<sup>1)</sup>과 같은 음악산업 견본시를 위주로 발달되어 왔으나 최근 디지털산업의 발달로 견본시 참석인원이 감소추세로 이르면서 팝콤의 경우 2010년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컨퍼런스 위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추세다<sup>2)</sup>
-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된 컨퍼런스는 라이브뮤직 관련 컨퍼런스, 음악 페스티벌 관련 페스티벌 등 세부적으로 특화되었으며 전통적인 음악도시인 리버풀을 중심으로 한 리버풀 사운드 시티(Liverpool Sound City) 등이 새롭게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시점	이름	지역	역사	홈페이지
3월	MIDEM/MidemNet	프랑스 칸느	11년	www.midem.com
3월	International Live Music Conference	영국 런던	12년	www.ilmc.com
3월	British Music Week	영국 런던	5년	www.britishmusicweek.com
4월	IASPM(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conference	영국 리버풀(2009)	15년	www.iaspm.net
5월	Liverpool Sound City	영국 리버풀	2년	www.liverpoolsoundcity.co.uk
11월	UK Festival Conference	영국 런던	6년	www.festivalconference.com

[표] 영국 및 유럽지역 음악산업 컨퍼런스

1) 1989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시작되어 쾰른에서 열리고 2004년 이후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독일 최대의 음악견본시로 음악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의 부대행사를 진행했으며 국내에서도 참가한바 있음  
 2) 음악산업동향-국제음악견본시 Popkomm2009 취소 발표(06/19)

- 국제대중음악학회 IASPM(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conference)의 경우 미국지역 등에서는 매년 별도의 행사를 주최하며 전 세계 모임은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음악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아시아 지역의 경우 Inter-Asia Pop<sup>3)</sup>이 주최하여 Inter-Asia Popular Music Studies Conference를 별도로 운영하며 2008년 일본 오사카에서 1회가 개최되었으며 2회는 2010년 6월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국제 라이브뮤직 컨퍼런스(International Live Music Conference, ILMC)는 라이브 뮤직에 관한 컨퍼런스로 라이브네이션(Live Nation), 티켓마스터 등의 기업들이 참가하여 라이브 뮤직에 대한 현안을 논의한다.
- 브리티시 뮤직위크(British Music Week)는 2005년 런던에서 시작되어 음악 산업에 초점을 맞춘 엔터테인먼트 행사로 컨퍼런스, 전시회, 축제 등이 동시에 열린다. 일주일간 런던 일대의 클럽, 공연장 등 40개 장소에서 컨퍼런스와 페스티벌, 마켓, 어워드, 워크숍 등이 동시에 열린다.
- 리버풀 사운드 시티(Liverpool Sound City)는 2008 유럽 문화수도에 명명된 기념으로 시작된 뮤직페스티벌로 리버풀 음악인들과 프로모터들이 음악산업의 주요 핵심인물들과 음악산업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 페스티벌이 발달한 영국의 UK Festival Conference 는 UK Festival Awards 시상식과 더불어 진행되며 독립 페스티벌 협회인 AIF(the Association Of Independent Festivals), 영국 Music Managers Forum 등과 협력하여 진행된다. 페스티벌의 미래에 대한 담론을 다루는 “FESTIVAL FUTURES: SEEDING NEW FIELDS”, 성공적인 페스티벌 브랜드를 유지하는 법을 다루는 “HOW TO SUSTAIN A SUCCESSFUL FESTIVAL BRAND” 등 페스티벌에 관한 실질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다룬다.

3) <http://interasiapop.org/>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필리핀 등이 모인 아시아 대중음악연구그룹

□ 아시아지역 주요 음악 컨퍼런스

- 아시아지역은 세계적 규모의 음악컨퍼런스가 부족한 실정으로 아시아 태평양을 아우르는 호주 지역의 대표적인 컨퍼런스인 Big Sound와 홍콩을 기점으로 한 아시아 음악산업계를 다루는 Music Matters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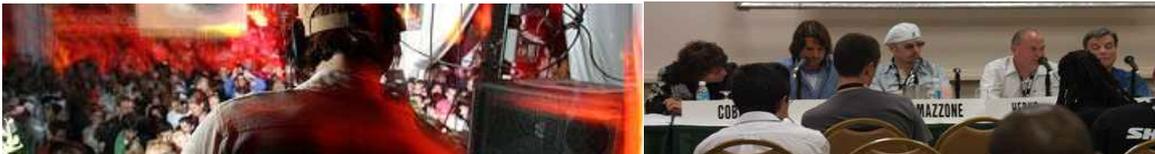
시점	이름	지역	역사	홈페이지
5월	Music Matters - the Asia Pacific Music Forum	홍콩	3년(2006시작)	www.musicmattersasia.com
9월	BIG SOUND : Music Industry Summit & Showcase	호주	8년(2002시작)	www.qmusic.com.au/bigsound2009

-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산업 컨퍼런스는 뮤직매터스가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뮤직 포럼(Asia Pacific Music Forum)으로 아시아 음악 산업만을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다.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음악산업 기업들과 전 세계적인 음악산업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혁신적이고 성공한 음악 산업 관련 기업 및 개인 몇 명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된다.
- 호주를 대표하는 음악산업 포럼인 Big Sound는 퀸즈랜드 주 정부가 지원하는 Q Music(Queensland Music Network Inc)이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음악행사로 3일간 전세계 음악산업 관계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한다. 2009년에는 쇼케이스 형식의 Big Sound Live라는 공개행사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유럽의 미뎀과 미뎀넷과 교류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 2-1. 시점별 주요 음악 컨퍼런스 현황 및 이슈

- 세계의 주요 음악산업 관련 컨퍼런스는 한해를 정리하여 차년도 3월~5월에 가장 많이 열리며 페스티벌이 주로 열리는 음악축제 시즌인 여름과 동절기는 주로 열리지 않는 편이다.
- 2009년에 열린 주요 컨퍼런스 이슈는 컨퍼런스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여 왔지만 기본적으로 음악산업계의 현황점검과 동시대 화두를 논의하는 자리로 디지털 음악시장의 화두인 모바일 시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디지털 음악기술 등에 대한 세부 논의와 음악산업의 미래, 저작권 관련 이슈 등을 폭넓게 다루었다.

### 윈터뮤직 컨퍼런스(Winter Music Conference)<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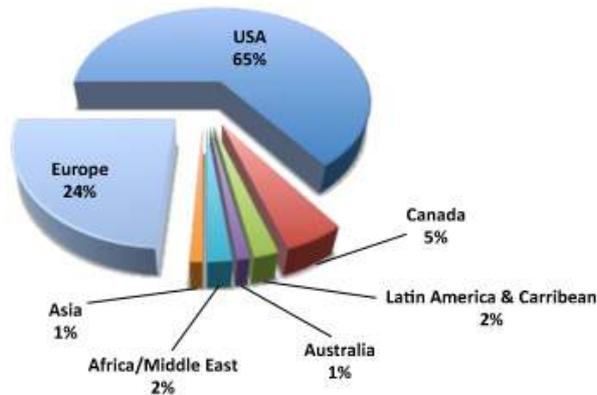


#### 1. 페스티벌 개요

Winter Music Conference			
지역	미국, 마이애미	역사	25년(1985년 설립)
특징	일렉트로니카 음악 중심	개최일	3월 (2009. 3. 24~ 3. 28)
홈페이지	www.wintermusicconference.com	주관	Winter Music Conference
주요참석자 (2009)	전 세계 62개 국가 3,228명의 산업관계자 참석		
주요구성	세미나 : WMC Seminars & Panels, The Producers Forum, 시상식 : International Dance Music Award(IDMA), 음악축제 Ultra Music Festival, 그 외 부대행사 Demo Listening Workshops 등		

4) Winter Music Conference <http://www.wmc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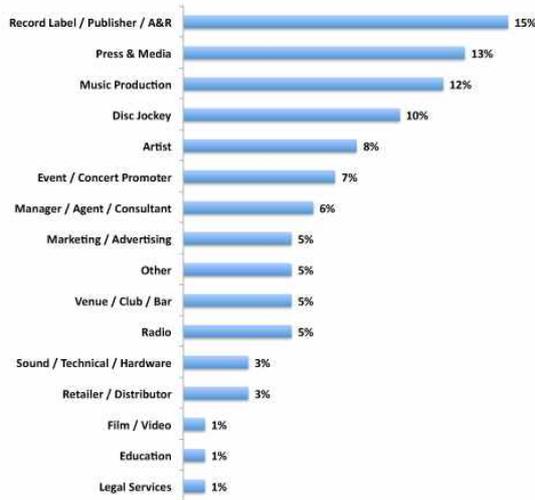
-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음악축제인 윈터뮤직컨퍼런스(WMC, Winter Music Conference)는 1985년 설립되었으며 25주년이 된 행사로 일렉트로닉과 댄스 음악이 특화된 행사로 1980년대 중반부터 매년 3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서 일주일간 열린다.



[그림] 2009 Winter Music Conference DELEGATES BY REGION AT WMC 2009

(출 : [www.wintermusicconference.com](http://www.wintermusicconference.com))

-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린 2009년 행사 참가자의 38% 이상이 미국 아닌 해외에서 오는 국제적인 행사로 참가비율을 보면 미국(65%), 유럽(24%), 캐나다(5%), 라틴아메리카(2%), 아시아(1%) 순이다.
- 단일 컨퍼런스에 국한된 것이 아닌 종합행사를 지향하는 페스티벌 형태로 행사기간 동안 500개의 작은 행사가 이루어지며 전시, 세미나, 공연, 시상식, 네트워킹 이벤트, 파티 등 다양한 부대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 음반회사, 언론사, 뮤지션 등 다양한 음악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2009년에는 1910명의 아티스트와 디제이, 전 세계 62개 국가에서 온 3,228명의 산업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페스티벌 방문자만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MUSIC INDUSTRY PROFESSIONALS AT WMC 2009

## 2. 컨퍼런스 프로그램 및 주요 이슈

- 컨퍼런스 및 세미나 프로그램 : WMC Seminars & Panels, The Producers Forum 등으로 이루어지며 최대 규모에 맞게 세부 세션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Seminars & Panels Sections		
Music and Industry	Innovations in DJ and Production Technology	Distribution
Radio Exposure	Legal Issues and Advice Media	Foreign Markets
Revenue Streams	A&R Listening Workshops	Artist Development
Audio Technology	Artists	Club Culture
Distribution	DJ and Artist Meet and Greet	European Market Trends
Event Promotion	Independent Record Labels	Independent Retailers
Latin Music	Major Record Labels	Managers and Agents
Online Retailers	Producers and Remixes	Promotion
Record Pools	Songwriting/Publishing	and More

[표] 2009 Winter Music Conference 세미나 섹션

- 세부주제 내용으로는 일렉트로닉 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New Directions in Electronic Music”,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수익창출에 대해 다루는 “Alternative Revenue Through Social Media”, 블랙베리, 노키아, ZUNE 등의 담당자가 모인 “Mobile Music”, 새로운 음악산업의 유통 및 홍보 방법으로 인터넷 기술들을 소개하는 “RSS Feeds, Podcasting & Webcasts” 일렉트로닉 장르에 특화되

어 모바일 디제잉 산업을 다룬 “The Business of Mobile DJing” 등이 이루어진다.

- “Demo Listening Workshops” 는 아티스트와 프로듀서들이 참석하여 쇼케이스를 하고 참석한 앞서는 산업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자리다.
- 1996년부터 진행된 프로듀서 포럼(The Producers Forum)은 WMC와 레코딩 아카데미(The Recording Academy)<sup>5)</sup>의 협력하에 11년째 진행되는 것으로 전설적인 아티스트와 산업계에서 존경받는 프로듀서들이 대거 참석한다.

○ 시상식 : 국제 댄스 뮤직 어워드(International Dance Music Award, IDMA)

○ 장르특화 행사 : DJ Academy, WMC DJ Spin-Off 등

- DJ아카데미를 비롯하여 WMC DJ Spin-Off로 불리는 대표적인 경쟁프로그램, 올해는 WMC 2009 VJ Challenge<sup>6)</sup>가 열린다.
- 특히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마스터 클래스를 비롯하여 디제잉이나 일렉트로닉 음악 제작에 쓰이는 각종 미디콘트롤러를 비롯한 각종 악기 및 장비 시연회 등으로 구성된다.

○ 음악축제 :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Ultra Music Festival)<sup>7)</sup>



- 윈터뮤직 컨퍼런스 기간 중에 음악축제인 Ultra Music Festival를 마련하여 참석자들이 즐길 수 있게 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로 IDMA(International Dance Music Awards)로부터 "Best Music Event" 상을 수차례 받은 바 있으며 DJ 및 VJ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2일간 공연을 펼친다.
- 2009년 11회를 맞이하였으며 56개 국가에서 85,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sup>8)</sup> 되었으며 일렉트로닉 대표적인 뮤지션인 폴 반 다이크(Paul Van Dyk), 칼 콕스(Carl Cox), 프로디지(The Prodigy) 등이 참여한다.

5) The Recording Academy : 미국의 그래미상을 수여하는 기관으로 미국 국립 레코딩 예술 과학 아카데미 인The National Academy Of Recording Arts & Sciences(NARAS) 로 불리기도 함

6) VJ : video performance artist

7) Ultra Music Festival <http://www.ultramusicfestival.com/>

8) Ultra Music Festival 공식홈페이지 발표자료

- 부대행사 : RECORD COLLECTORS SHOW, South Beach Session
  - LP 레코드(vinyl) 수집가를 위한 행사로 열린 마켓으로 누구든지 등록만 하면 사고 팔수 있는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음악애호가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면모를 보였다.
  - 마이애미라는 지역적 특징을 살려 해변을 비롯하여 마이애미내 다양한 클럽까지 이어지는 South Beach Session을 마련하여 컨퍼런스와 공연을 동시에 진행한다.
  
- 한국 뮤지션 중에서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하우스 디제이인 오리엔탈 핑크 스투(Oriental Funk Stew)가 한국대표로 참가 하였으며 2009년에는 한국내 기업프로모션을 통해 2010년 윈터뮤직 컨퍼런스 한국대표 참가자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9)

---

9) 밀러브루잉코리아가 주최하여 '릴리즈 더 프레쉬 캠페인'의 일환으로 <밀러프레쉬엠> 행사를 통해 한국대표를 선발함(9/25)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페스티벌 (South By Southwest; SXSW)



1. 페스티벌 개요

South By Southwest; SXSW Music and Media Conference			
지역	미국, 텍사스 오스틴	역사	23회(1987년 시작)
특징	음악중심의 음악, 필름, 인터랙티브 축제	개최일	3월 (2009. 3. 17-21)
홈페이지	<a href="http://sxsw.com/">http://sxsw.com/</a>	주관	SXSW
주요참석자 (2009)	1,300여 뮤지션 및 전세계 음악산업계 관계자		
주요구성	페스티벌, 컨퍼런스, 멘토링 프로그램 등		

- 매년 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영화, 음악, 문화 축제인 미국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페스티벌은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 컨퍼런스이자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축제 및 쇼케이스와 결합하는 형식적인 특징과 영화에서 인터랙티브 등의 기술 이슈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복합 문화축제로서의 내용적 특징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컨퍼런스로 급부상 하였다.
- 80년대 후반에 지방도시에서 활동 하는 밴드들이 전국 무대로 나가기 위해 쇼케이스를 하는 뮤직 콘서트를 기반으로 한 뮤지션 마켓으로 출발하였으며 전 세계로부터 매년 약 15,000명의 음악 관계자가 모이는 세계 3대 음악 전시회로 성장하였다.
- 국제적 명성의 멀티미디어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 SXSW)는 음악, 필름, 멀티미디어 컨퍼런스로 1987년에 처음 시작하였고 그 중 화려한 음악축제 프리덤 페스티벌(The Freedom Festival)은 라이브 뮤직, 다양한 음식, 불꽃놀이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 그 중 South By Southwest Music Festival은 미국 신인 발굴의 최고 축제로 평가받고 있고, 소니-BMG, 워너 브러더스, EMI, 유니버설 등 메이저급 음반사들이 참여하는 음악 & 미디어 컨퍼런스와 같이 진행되면서 참가율을 높였다.
- 크기는 Music Festival, Film Festival, Interactive Festival로 나뉘어 지고, 그 중 Music Festival(3월 중)은 독특하게 음악산업·음악비즈니스 중심의 행사로 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드 쇼, 컨퍼런스(비즈니스 워크숍, 뮤지션 인터뷰, 강연 등) 등이 무수히 펼쳐지는 '종합 음악비즈니스' 형태의 축제를 지향한다.
- SXSW가 갖고 있는 아티스트 발굴이라는 주요 특징에 맞게 행사는 음반사들의 A&R(뮤지션 섭외파트)과 뮤지션들을 연결해주는 기능과 각 나라 뮤지션들이 미국/영국을 포괄하는 전 세계 진출(해외유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을 중시하는 축제로 기획되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 멘토가 되어 조언을 해주는 Mentor Session이나 1:1로 이루어지는 Demo Listening Session을 비롯하여 Quickies Sessions 등이 있다.
- 공연장도 300명 정도 수용되는 곳에서부터 3,000명 정도 수용되는 라이브 클럽, 중대형 공연장, 시청 앞의 2만 명 정도가 수용되는 야외공연장까지 다양하며 각 공연장에서 레이블별, 국가별, 장르별로 나뉘어 수백여 팀이 공연을 갖는다.
- 규모 있는 음악축제로 발전하면서 SXSW Awards 가 따로 있으며 잘 알려진 뮤지션은 물론이고 장르에 관계없이 젊고, 실험적이며 진보적인 뮤지션들이 공연을 하고, 또는 신인뮤지션이 자신들의 독특한 음악을 알릴 수 있는 역할하게 되었다.

## 2. 컨퍼런스 프로그램 및 주요 이슈

- 2009년엔 오스틴시의 6번가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약 80개의 공연장(라이브클럽 중심)에서 1,300여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2,000여개의 공연이 벌어져 음악 컨퍼런스를 넘어선 음악축제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 행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Seattle Music Mixer(9월), San Fransisco Music Mixer(10월)와 같이 지역별 음악산업 관련 컨퍼런스를 열기도 하였으며 음악산업에 관한 뉴스와 이슈를 웹을 통해서 꾸준히 자료를 제공한다.

- 2009년엔 그래미 수상 프로듀서 퀸시존스의 키노트 연설이 있었으며 뮤직 컨퍼런스에서 프로모션, 홍보, 매니지먼트, 머천다이징, 기업으로서 음악가, 디지털 음악 혁명, 음악매니저의 전략, 프로듀싱, 소셜네트워크 등의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었다.
- 2010년엔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화두를 다룬 "Social Networks And The Future For Musicians", 전세계의 우수 페스티벌에 관한 "Meet Bookers for Top Festivals Worldwide", 소울 뮤직을 다룬 "Meet The New Soul, Same As The Old Soul?" "Reaching Your Audience On Their Terms" 등의 주제 패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 디지털 뮤직 포럼 (Digital Music Forum East/West)

---



<그림> 디지털뮤직포럼 로고 및 사진  
(출 : [www.digitalmusicforum.com](http://www.digitalmusicforum.com))

### 1. 페스티벌 개요

Digital Music Forum East/West			
지역	미국, 샌프란시스코/뉴욕	역사	2000년 시작
특징	디지털 음악시장 관련 컨퍼런스 중심	개최일	EAST/WEST 총 2회 (2009. 2. 25-6/2009. 10. 7-8)
홈페이지	www.digitalmusicforum.com	주관	Digital Media Wire <sup>10)</sup>
주요참석자 (2009)	The NPD Group, Forrester Research, MTV Networks, Napster/BestBuy, Yahoo!, Warner Bros. Records, CBS Radio, Pandora, Imeem 등 각 섹션별 최고 권위자 참석		
주요섹션 (2009)	[Top Digital Music Trends], [The State of the Digital Union], [The Future of Internet Radio], [The Pros and Cons of 360 Deals], [What Changes Are Needed to Reform the Digital Copyright System?], [Digital Music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Licensing 2.0], [Online Video and Music], [Indies in the Digital Age]		

- <디지털 뮤직 포럼>은 디지털 음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표적인 포럼으로 디지털 미디어 와이어가 주최하였으며 동부와 서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 디지털 뮤직 포럼 WEST는 2009년 10월 7-8일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으며 EAST는 2월 25-26일 뉴욕에서 열리며 동부는 올해로 9년째, 서부는 4년째를 맞이했다.
- 동부와 서부의 프로그래밍이 조금 다르며 판도라, 디지털뮤직와이어, 아이라이크, 워너뮤직, 아이뎀 등에서 참석하였다.

## 2. 컨퍼런스 프로그램 및 주요 이슈

- 소비자 행동변화, 주요한 테크놀로지 채널 및 플랫폼, 디지털 상품 등에 대해 토론하는 <디지털 뮤직 트렌드>, <디지털 뮤직 이노베이션과 미래>, <모바일 APP: 음악산업의 새로운 개척자인가?>, <인터넷 라디오의 미래>, <음악산업에 미칠 소셜미디어의 이익의 다음단계는?> <소셜미디어 2.0> <디지털 저작권 논쟁> <뮤직비디오의 현황> 관련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10) 디지털 미디어 와이어 www.dmwmedia.com :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에 관한 뉴스레터 등을 제공하며 관련분야 컨퍼런스를 개최함

## 샌프란시스코 뮤직테크 서밋 (San Fran Music Tech Summit)

### 1. 페스티벌 개요



San Fran Music Tech Summit			
지역	미국, 샌프란시스코	역사	2008년 시작(총 5회)
특징	음악 및 기술 관련 이슈 컨퍼런스 중심	개최일	상반기/하반기 총 2회 (2009. 5. 18/2009. 12. 7)
홈페이지	www.sanfranmusictech.com		
주요참석자 (2009)	뮤직 2.0 기업위주 (lala, iLike.com, Pandora, Grace Note, Buzz Media, Future of Music Coalition, Radio Paradise, Bandcamp, The Hype Machine, You Tube 등)		
주요섹션	Music Recommendation Services, Social Networking & Music ETC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SanFran MusicTech Summit는 2008년에 시작되어 매회 2회씩 개최하여 올해 5회를 맞았으며 행사규모는 적지만 컨퍼런스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음악산업의 기술이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

### 2. 컨퍼런스 프로그램 및 주요 이슈

- 개발자와 사업가, 투자자와 서비스 공급자, 저널리스트, 뮤지션을 비롯해서 문화와 커머스를 결합하려는 조직까지 한데 모여서 진화하는 음악 및 기술 생태계를 진단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를 근거지로 한 다양한 음악관련 벤처 기업 들의 네트워킹 장으로의 역할을 하며 올해는 음악 산업 관계자, 기술 개발자, 아티스트를 포함한 65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2009년 행사에서는 대규모 행사는 아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라라(lala), 아이라이크(iLike.com),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인 판도라(Pandora), 음악인식 및 솔루션 전문회사 그레이스노트(Grace Note), 대표적인 온라인 음악미디어인 버즈미디어(Buzz Media), 아티스트 권리 단체인 Future of Music Coalition, 인터넷 라디오 라디오 파라디이스(Radio Paradise) 등 뮤직 2.0을 이끄는 기업이 대거 참가하여 음악 및 음악관련 기술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기술에 특화된 컨퍼런스 모임답게 브라우저 개발자 모임과 파티 그리고 웹2.0, 웹 어플리케이션, Ajax, 모바일 까지 안 다루는 게 없는 열린 패널들로 구성되었다.
  
- 음악 추천 기술상품이 어떻게 시장 변화를 이끄는지, 음악 추천 사업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등을 토론하는 'Music Recommendation Services' 세션 외에도 소셜 네트워킹 관련 'Social Networking & Music', 'Music in Audio-Visual Works' 'The Future of the Music Industry' 등의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Music Matters (ASIA) : 아시아 태평양 뮤직 포럼(Asia Pacific Music Forum)

1. 페스티벌 개요



Music Matters ASIA : Asia Pacific Music Forum			
지역	홍콩	역사	3회(2006년 설립)
특징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특화된 음악산업 포럼	개최일	6월 (2009. 6. 2-4)
홈페이지	www.musicmatters.com	주관	Music Matters
주요참석자 (2009)	폴 맥귀네스(U2 매니저), 에드가 브론프만 주니어(워너 뮤직 그룹 회장), 에디슨 첸 (아티스트), 샘 듀언(락 레코드 사장), 테리 맥브라이드(네트워크 뮤직 그룹의 CEO 겸 에이브릴 라빈 매니저), IFPI 회장 존 케네디 등		
주요구성	Conference, Live Music Session, Networking Party 등		

- 뮤직매터스 아시아 : 아시아 태평양 뮤직 포럼(Asia Pacific Music Forum)은 아시아 음악 산업을 위해 만들어진 포럼으로 혁신적이고 성공한 음악 산업 관련 기업 및 개인 몇 명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하거나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되었다.
- 뮤직 매터스(Music Matters) 주최로 대형 레코드 회사, 독립 레코드 회사, 프로모터, 법조인, 금융인, 모바일 및 미디어 등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음악 산업의 주요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아시아의 음악 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 2009년 행사에는 26개국 300개 회사, 100여개 언론이 참여하였으며 78명의 인사, 14 명의 아티스트 공연을 비롯한 5개의 국제 행사, 네트워킹 파티 등으로 구성되었다.

- 기조 연설자로 폴 맥귀네스(U2 매니저), 에드가 브론프만 주니어(위너 뮤직 그룹 회장), 에디슨 첸(아티스트), 샘 듀언(락 레코드 사장), 테리 맥브라이드(네트워크 뮤직 그룹의 CEO겸 에이브릴 라빈 매니저), IFPI 회장 존 케네디, 하지 타니구치(Avex Group Holdings) 등 아시아 및 국제 음악 산업계 리더들이 참석하였다.
- 컨퍼런스 위주의 행사를 탈피하여 라이브 공연 등을 추가하면서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의 유명 재즈 아티스트인 제이미 칼럼(Jamie Cullum)은 아태 음악 포럼을 통해 새 앨범을 발표 및 공연을 하여 이슈가 되었다.

## 2. 컨퍼런스 프로그램 및 주요 이슈

-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음악의 접근을 더욱 쉽게 만들고 소비자 간의 소통과 아티스트의 영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음악산업의 출발인 훌륭한 아티스트와 콘텐츠라고 피력하였다.
-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음악 산업 포럼으로 일본시장(ex. Plug into Japan), 중국 시장(ex. Digital China Session) 등의 지역별 세션을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One on One with Korea>라는 세션을 통해 한국의 음악산업 시장과 한류의 미래 등을 발표되기도 하였다.
- 기조연설은 유니버설 LLC 일본 및 RIAJ<sup>11)</sup>의 회장인 Kei Isahizaka이 <New Strategies & Opportunities in Japan>로 발표하였으며 PwC 등이 참여하는 <Business Matters> 등을 통해 연간 음악산업 및 소비자 동향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 <It's a small world after all> 세션을 통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위너뮤직의 마이클내쉬(Michael Nash), 소니뮤직의 올레 오버만(Ole Obermann), 유니버설 뮤직 그룹 인터내셔널 록웰스(Rob wells) 등 3명의 메이저 음반사의 디지털 사업부 대표들이 모여 글로벌 디지털 환경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다.
- <Music Matters to Mobile> <Mobile Gatekeepers> 등의 모바일 관련 이슈를 비롯해 소셜네트워크 이슈를 비롯해, <Monetising Social Networks> 구글 차이나를 통해 뮤직서비스를 선보인 <Google Music> 세션 등 최신 산업의 이슈를 다루었다.

11) 일본 레코드 협회(日本レコード協會,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 Midem/ MIDEMnet LAB Conference



MIDEM /Midemnet Conference			
지역	프랑스, 칸느	역사	11년
특징	세계 최대의 음악산업 전시회	개최일	3월 (2009. 3. 24~ 3. 28)
홈페이지	www.midem.com	주관	리드미템(Reed Midem)
주요참석자 (2009)	데이비드 은(Eun) 구글 부사장, 아미트 카푸르(Kapur) 마이스페이스 수석 부사장, 테로 오얀페라(Ojanpera) 노키아 전무이사 등		
주요구성	Midem Conference + Midemnet Conference		

## 1. 페스티벌 개요

- 미템(MIDEM)은 프랑스의 미디어 그룹인 리드미템(Reed Midem)이 주관하는 행사로 90여 개국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고 규모의 음악산업 전시회이자 음악 비즈니스인 축제로 43회를 맞았으며 매년 프랑스의 칸에서 개최되었다. 부대 행사로 Midem Conference 및 Midemnet Conference(1/17~19) 로 나뉘어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 미템(Midem)이 광범위한 음악산업을 다루고 있다면 미템넷(Midemnet)은 11년 동안 디지털 시대의 음악산업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으며 컨퍼런스와 미템넷랩과 미템넷 아카데미 등으로 이루어진다.

## 2. 컨퍼런스 프로그램 및 주요 이슈

- Midem Conference는 Artist Management, Digital/New Business, Images & Brands, Indie, Live, Publishing, Special sessions (legal, classical & jazz) 세션으로 이루어졌으며 Listening Session을 통해 쇼케이스 형태로 음악을 선보이면 광고, 영화, 비디오 게임 등에 음악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올해(2009)년 컨퍼런스에서는 데이비드 은(Eun) 구글 부사장, 아미트 카푸르(Kapur) 마이스페이스 수석 부사장, 테로 오얀페라(Ojanpera) 노키아 전무이사 등과 같이 한국에서는 JYP의 박진영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였다.
- 미템넷랩은 전세계의 음악 산업의 미래를 이끌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만한 젊은 기업들을 집중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회사들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비디오 데모나 참석 대표들과 면대면 미팅을 갖으며 전시 회내 별도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 2010년엔 Music Ally 과 공동으로 14개 음악테크놀로지 기업 쇼케이스를 하며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 Ed O'Brien가 참가하며 스포티파이(스웨덴) CEO, 독일 Sound Cloud<sup>12)</sup> , 미국의 Hype Machine <sup>13)</sup>기업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Future of Music Policy Summit 2009



### 1. 페스티벌 개요

Future of Music Policy Summit			
지역	미국, 워싱턴	역사	9회(2000년 시작)
특징	음악 산업 정책 컨퍼런스	개최일	10월 (2009. 10. 4~ 6)
홈페이지	futureofmusic.org	주관	Future of Music
주요참석자 (2009)	NPR, Chicago Tribune ,스포티파이 설립자 Daniel EK, Mike Mills of R.E.M., Brian Message(Radiohead 매니저) 등		
주요구성 (2009)	<Future of Music> <Music 2.0> <New DIY Model> <New business models >		

12) 전문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 [www.soundcloud.com](http://www.soundcloud.com)

13) 블로그 등에 올려진 MP3 등을 검색해서 스트리밍 하는 서비스 [www.hypem.com](http://www.hypem.com)

-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음악 작가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단체로 교육, 리서치, 뮤지션을 위한 권리 발언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Future of Music Coalition<sup>14)</sup>이 주최하였다.
- 가장 최근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고 음악산업 정책에 포커싱된 행사로 특화되었으며 음악, 테크놀로지, 산업관계자, 정부관계자 까지 모두 모여서 이루어지며 무료로 웹캐스팅을 통해 생중계하여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컨퍼런스 프로그램 및 주요 이슈

2009 Session Topics 예시	
Visionary presentations on the music-tech space	음악테크놀로지 프리젠테이션
Ten years after Napster	냅스터 그 이후 10년
Practical tips for musicians	뮤지션을 위한 실용팁
New business models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Future of the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 <sup>15)</sup> 의 미래
Intellectual property, privacy & network rights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네트워크 권리
Screening of Copyright Criminals documentary	'저작권 위반자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상영
Online Retailers	온라인 소매상 현황
Record Pools	레코드 풀

- 주최기관인 <future of Music> 이 음악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인 만큼 가장 최근 이슈가 되는 음악과 기술 관련된 이슈를 주로 다루되 뮤지션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과 음악산업 미래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Future of Music : 음악산업의 미래
  - 음악생태계의 변화를 주목하여 음악/기술 공간에 관한 창작자와 팬이 모두에게 효과적인 음악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공존에 대한 단순한 대응이 아닌 누가 변화를 이

14) Future of Music Coalition [www.futureofmusic.org](http://www.futureofmusic.org)

15)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 미국에서 1998년에 제정된 저작권법

끝었는지 통찰하고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음악의 미래를 가늠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뮤지션, 아티스트 레이블, 온라인 회사 임원 등이 모두 모여 논의하였다.

○ Ten years after Napster : 냅스터 그 이후 10년

- 새로운 밀레니엄이 도래하면서 탄생한 냅스터 이후 10년간 많은 변화 특히 DRM을 비롯하여 주요 음반사의 음악서비스, 합법화된 P2P서비스의 등장, 개인대 회사간의 법적 분쟁 등 지속적인 변화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논의하였다.

○ NEW DIY : 새로운 DIY<sup>16)</sup> 모델

- 디지털 시대에 뮤지션이 직면한 생계를 유지시키면서 그들의 커리어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일방적인 계약형 방식에서 벗어나 팬들이 후원하는 모델 등으로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 DIY의 가장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라디오헤드(Radiohead), 펄잼(Pearl Jam)까지 메이저 그룹들이 음반회사와 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음반 활동을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장 장기적인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되었다.
- 새로운 틀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팬층을 확보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DIY모델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모델을 조명해보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 MUSIC 2.0 : 뮤지션이 그들의 작품을 홍보하고 유통시키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 뮤지션이나 인디레이블에서 음악을 팔고 유통시키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틀과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마케팅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함께 보고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써야하는 것인지 등을 논의하였다.

16) DIY (Do It Yourself) :스스로 직접한다는 뜻으로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음반 기획, 홍보, 유통까지 스스로 하는 뮤지션을 일컫음

### 3. 세계 주요 음악 컨퍼런스 흐름 및 특징

#### □ 페스티벌형 컨퍼런스로 발전

- 음악산업 관련 컨퍼런스는 산업적 특성상 이론적 담론이나 세미나 형식만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산업의 모체가 되는 음악자체를 즐길 수 있는 라이브 공연 등과의 연계로 축제형으로 발전되었다. 대표적인 페스티벌형 컨퍼런스는 SXSW, 윈터뮤직 컨퍼런스 등으로 음악축제, 어워즈 등과 결합하여 종합축제 형식을 띄고 있다.
- 주요 산업관계자 들이 한데 모이는 특징을 활용하여 신인 뮤지션 발굴 등의 오디오션형 행사들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뮤지션과 산업관계자 특히 디지털 음악에서 다각화된 음반사와 유통사, 서비스 프로바이더, 기술개발자 등이 한데 모이면서 각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 최근 디지털 음악의 발전에 따라 뮤지션이 홍보 및 유통 등 창작에서 산업 영역까지 역할을 확대하면서 뮤지션이 보다 많이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으며 산업관계자의 모임과의 교류도 확대되었다. 뮤지션의 컨퍼런스의 참여로 자연스럽게 공연 행사와도 연결되게 되었다.

#### □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이슈 중심으로 특화

- 디지털 음악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디지털 뮤직 포럼(Digital Music Forum)을 비롯하여 최근 실리콘 밸리 음악벤처 기업들이 주로 모이는 샌프란시스코 뮤직 테크 서밋(San Fran Music Tech Summit) 등이 디지털 음악산업의 가장 최신 이슈들을 다루면서 부각되었다.
- 전통적인 미팅도 미팅넷을 통해 디지털 이슈들을 따로 다루는 섹션을 마련하였으며 컨퍼런스의 주제도 전통적인 음악산업의 분야를 다루되 모바일이나 소셜미디어 등 최신 디지털 이슈 등을 접목하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 음악 기술에 대한 공유 및 소셜미디어나 웹 2.0에 관한 기술 이슈를 다루고 이러한 변화된 기술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이나 세부논의를 이어가면서 저작권 등의 필수적인 음악산업 이슈까지 총 망라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 장르, 비즈니스, 정책 등 특화 컨퍼런스의 지속발전

- 일렉트로닉 음악장르에 특화되어 발전된 윈터뮤직 컨퍼런스, 음악산업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퓨처오브뮤직 서밋, 페스티벌이나 라이브 뮤직만을 다루는 영국의 컨퍼런스 등 산업이 발전하면서 보다 세부화된 이슈들을 심도 깊게 나누고 관련 장르나 업계간 네트워킹을 확대할 수 있는 전문 컨퍼런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추세다.

## □ 2009년 주된 화두는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Music 2.0과 모바일

- 2009년 현재까지 열린 음악산업 컨퍼런스 중 대다수는 <음악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음악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전망하는 세션을 다루었다. 모바일 APP의 활용을 비롯한 모바일 음악산업의 확대에 따른 변화 대응이나 소셜네트워크의 수익모델을 논의하는 '소셜네트워크 2.0' 이나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음악산업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Music 2.0' 등을 다루었다.
- 2009년 음악산업계의 이슈를 증명하듯 대부분의 컨퍼런스의 주요 연사는 주요 메이저 음반사 대표 위주에서 Music 2.0 기업위주로 확대되었다. 마이스페이스에서부터 유럽에서 가장 이슈가 된 기업인 스포티파이(Spotify)<sup>17)</sup>, 모바일 APP로 가장 인기 있는 판도라 뮤직, 아이라이크(iLike)와 같은 Music SNS기업이 많았으며 2009년 최대 화제가 된 서비스인 트위터를 비롯하여 독립적인 유통 모델이나 디지털 다운로드 등을 선보인 알이엠(R.E.M)이나 라디오헤드(Radiohead) 등 뮤지션들의 연사 참여도 많았다.

17) www.spotify.com 유럽을 기반으로 한 스트리밍 뮤직서비스로 모바일 버전을 통해 P2P 방식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애드웨어 형태의 무료음악듣기/월정액 기반 음악 듣기 제공하며 최근에 미국서비스 진출

#### 4. 결론 및 시사점

- 세계 주요 음악산업 컨퍼런스는 지역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시기적으로는 주로 3월에서 5월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통의 컨퍼런스와 신규 컨퍼런스가 고루 발전되었다.
  - 새로운 뮤지션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인터랙티브 등의 기술 이슈와 결합한 25년 전통의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페스티벌의 음악 컨퍼런스는 축제형 컨퍼런스로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가장 주목받는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미국의 경우 음악테크놀로지를 결합하여 Music 2.0 기업을 이끄는 음악벤처 기업들이 많은 실리콘 벨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디지털 음악 및 기술 이슈를 특화한 컨퍼런스가 발달되었다.
  - 영국의 경우 페스티벌이나 라이브 뮤직과 같은 세부 음악산업을 특화한 컨퍼런스가 발전하였으며 유럽의 가장 전통적인 음악 산업 전시회이자 컨퍼런스인 미뎀(Midem) 등에서도 미뎀넷(Midemnet)이란 디지털 음악산업 이슈를 별도로 다루는 행사를 마련하여 Music 2.0 기업을 다루는 등 디지털 음악산업 이슈 등을 특화하였다.
- 전 세계의 음악산업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이슈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음악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며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 전통의 음반사 뿐만이 아닌 디지털 음악 산업계를 리드하는 선진 기업들의 노하우 및 사례를 공유하고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저작권, 새로운 음악관련 기술 등의 디지털 음악 산업의 이슈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음악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국내는 아직까지 음악산업에 관한 이슈가 디지털 관련 컨퍼런스 등에서 세부 주제로 다루어지면서 협소하게 논의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디지털 음악산업로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수준에 머물러 한계가 있다.
  - 전 세계적인 음악산업 이슈의 흐름을 되짚고 최근 가장 많이 변화가 되는 디지털 음악 산업의 기술에서부터 모바일 APP 등에 따른 모바일 음악산업으로의 발전,

소셜 네트워킹과 같은 디지털 기술 이슈 등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음악산업 전문 컨퍼런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 특히 해외 선진사례처럼, 음악산업 컨퍼런스도 디지털 음악산업의 변화를 받아들여 전통적인 음반사 위주의 음악산업계만의 행사가 아닌 음반사, 뮤지션, 매니저, 유통/배급사, 정책관계자, 기술 개발자, 이통사, 모바일, 뮤직2.0 기업까지 아우르는 구성으로 다른 산업과 융합되어 발전되는 음악산업의 핵심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네트워킹의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교육과 학습의 장으로서의 컨퍼런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디지털 음악시장의 최신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관련 산업계의 컨퍼런스에서 음악을 하나의 소재로 다루는 컨퍼런스와 차별적으로 음악산업계의 시각으로 해석된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이에 향후 음악산업 전문 컨퍼런스에서는 진화하는 음악관련 산업 기술의 현황과 관련한 사업기회 등을 모색해봄과 동시에 음악 산업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업계와 네트워킹 하는 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